

시론



김 일 태 전남대 석좌교수

미국의 세 도시 이야기

금융, 경제, 문화, 예술, 패션의 중심지 '빅 애플(Big Apple)'의 도시'로 세 도시 이야기를 그려 보았다.

몽고메리 거리의 첫 느낌은 애달픈 역사를 간직한 도시로 기억한다. 앨라배마주 주(州)도로서 목화재배의 주산지이며 앨라배마 강이 흐르고 있으며 강변의 항구(High Red Bluff)는 1821년 최초로 증기선(Harriet)이 도착한 곳이고 면직물을 수출하는 통로로 지금은 관광 유람선이 다니고 있다. 몽고메리는 1800년 남북전쟁 때 남북연합이 결성돼 초기 남군의 수도로 초대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 집무실이 보존된 남북전쟁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1965년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인권 행진을 했던 기념비적인 장소이다. 내쉬빌은 컨트리 가수를 꿈꾸거나 음악을 전공하려는 젊은이들이 한번은 방문해야 하는 곳으로 도시 전체가 음악이 흐르는 역동적인 도시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테네시주의 주도로 컨트리 뮤직 성지인 라이먼(Ryman) 오디토리움과 컨트리 음악 명예의 전당과 박물관, RCA 스튜디오 등이 랜드마크로 미국 컨트리 음악의 대부분을 제작했다. 그리고 도시의 거의 모든 팝이나 식당들이 밤새 독자적인 밴드를 공연하고 있을 정도로 사시 사철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은 곳이며 올해 CBS 방송의 새해맞이 축하행사가 열릴 정도로 음악의 성지인 곳이다. 지금 남부는 옛날 목화밭에서 앨라배마의 현대차와 LG 전자, 조지아의 기아차와 한화 큐셀, 현대전기차와 LG 배터리 공장(건설 중), 테네시의 SK 이노베이션 등 한국 기업들이 단독이나 합작으로 생산하는 산업단지로 거듭나고 있다. 이전에 한국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했지만 미·중 패권구조에서는 살아남을 방향을 미국에 서하고 있다.

뉴욕은 절대 잠들지 않는 도시(The City that never Sleeps)라는 애칭이 인상적이다. 조선 말기 민영환은 명성황후 시해(1895)와 아관파천 직후 1896년 4월 국운이 절망한 시기에 특명전권공사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 참석을 위해 대평양을 건너 러시아로 가는 도중에 5월6일에 뉴욕에 도착했다. 그들 눈에 비친 뉴욕은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9일 유럽으로 향하는 영국 상선 루카니아 호(The Lucania)를 타기 전 머무른 짧은 기간에 민영환은 총 204일간 세계일주 기행문 해천추범(海天秋帆·조제곤 편역)에서 '장춘원리무욕지(長春園裡無慾地) 불야성중극낙천(不夜城中極樂天)'인 "긴 봄 동산 속에 근심이 없는 곳이고 밤이 없는 성인의 극락 같은 하늘"이라고 당시 300만 가까운 주민이 거주하는 뉴욕의 첫 인상을 묘사했다. 그러나 현대사에서 9·1 테러로 붕괴된 쌍둥이 세계무역센터 자리에 세워진 3천여 명의 희생자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공간은 큰 슬픔의 장소로 남겨져 있다. 우리가 눈 여겨 볼 것은 84km의 맨해튼과 스태튼 아일랜드 사이를 오가는 페리명칭을 'Dorothy Day'라 부르고 기부자의 뜻으로 현지인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운 영돼 외국인들에게도 즐거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도시들은 시노 나나미가 묘사했듯이 '선과 악, 미(美)와 추(醜), 고상함과 저속함'이 교차하는 양면성을 지닌 사람들의 자취를 담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도시 이야기를 통해서 낡은 것들이 남아 있으면서 새로운 것들이 출현하는 진화의 시간과 사람들이 살아왔던 흔적을 간직한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진 창조의 공간을 담고 있는 도시의 궤적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社說 노사 상생형 일자리 GGM의 원칙 흔들려선 안돼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지역에 좋은 일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탄생한 전국 최초의 상생형 기업이다. 그런데 최근 노조가 생기고 민주노총 급속노조로 조직 형태를 바꾸면서 시민들 사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GGM 측은 사회적 약속이자 회사 설립의 근거인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를 준수해 모범 업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기술직 1년 차 초봉은 주거지원비와 격려금 등을 포함하면 3천748만원 수준으로 노조의 주장과는 800여만원의 차이가 있다고 했다. 휴대폰 강제 수거 등 인권 침해와 관련한 작업장에 지게차 이동, 물품 운반 등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일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섭 요구가 있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처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만든

회사다. 광주시가 2%·현대자동차 19%·산업은행 12% 등이 지분을 출자해 2019년 9월 출범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을 맺으면서 '노사상생발전 협정'도 함께 체결했다. GGM은 상생과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최고 품질의 경쟁력을 확보해 오는 7월 캐스퍼 전기차 양산에 반드시 성공,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이다. 내년 생산량 증가와 해외시장 진출, 2교대 확대 등 만반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노조와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한 노조원 수는 근로자 650여명 중 25%로 알려졌다. 임금, 근무 조건 협상 등에 당사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지만 노조의 영향력이나 활동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은 노사관계의 갈등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상생협의를 통한 입단협이 무력화되고 '무노조 무파업'의 기대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염려다. 어쨌든 광주형 일자리 자체가 흔들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자치칼럼



서 순 복 품질자치주민자치시민들 대표회장 조선대 법학과 교수

주민자치회 운영의 이상적인 상태는 무엇일까?

중앙정치는 4.5년마다 치뤄지는 선거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우리네 선거는 정치이념 스펙트럼상으로는 결정적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대 진영 간의 대결 양상이다. 총선이나 대선에서 지역의 문제는 더 이상 정치적 관심사가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회는 민주주의를 우리네 삶의 현장에서 가까이 끌어오는 실천적 기획이자 민주주의를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장 확실한 접근방법이다. 주민자치회가 민주주의의 구현장이다, 그 성공의 확실한 보장 장치라고 하지 않는가?

이러한 지방자치의 발전적 과제 정권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부활된 지 30년이 훨씬 지났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가 시행 된 지 20년이 지났다. 현재 실행 중인 주민자치회 제도는 시행 된 지 10년이 지났다.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실시된 지역도 많다. 그

렇다면 과연 주민자치회는 잘 되고 있는가?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부정적 평가도 여전하다. 더구나 현 정부 들어서 주민자치는 퇴행 내지 역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이때 주민은 주민등록법상의 거주 인구뿐만 아니라 관계 인구까지 포함할 수 있다. 해당 동 지역에 직장 등 연고를 갖고 있는 즉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조례에 의하면 주민 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또 자치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없을 때 행정에 도움을 요청하면 행정은 그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핵심인 보충성의 원리다. 그런데 주민들은 행정에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행정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없지 않다. 성숙한 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필요하다. 얼마 전 필자가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주민자치와 행정(자치단체장) 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가장 높은 응답비율로 마을 일에 대해 행정은 큰 원칙만 제시해 주민 자율에 맡기고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주민자치박람회도 21년만에 2023년에 폐지됐다. 그러나 해마다 시행돼 왔던 주민자치박람회의 우수사례 심사 기준으로 드는 것을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주민참여의 원칙에 충실한 사례, 민간협치의 원칙에 충실한 사례, 지역자 원 연계의 원칙에 충실한 사례, 학습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 주민자치 발전의 주체 형성과 사업의 지속성 토대를 마련한 사례, 지역사회 다양한 영역과 소통·네트워크를 만든 사례, 주민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노력이 돋보이는 사례, 해당 분야의 특성을 잘 구현하고 있는 사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구축하고 있는 사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이룬 사례가 그것이다. 주민자치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에 의하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참여 및 활동해야 한다. 또 나아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주민자치회 활동을 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2년 전 필자가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의식, 공동체 의식, 민주주의의식 '높다'보다는 '낮다'가 더 많았다. 로마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주민들의 자치 역량 성숙도 세월을 기다려야 한다. 주민 자치는 공짜가 없다. 깨어있는 주민들의 조직화된 역량이 정치 오염을 막고 주민자치회의 성숙을 앞당길 것이다.

독자투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현 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준법 정신이 필요하다. 준법 정신은 평화적 집회·시위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집회·시위뿐 아니라 모든 이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소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집회·시위에서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집회·시위 현장은 보통 학교, 상가, 주택가 등 다양한 시민들이 생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소음문제가 발

준법정신은 평화적 집회·시위의 시작과 끝

생하기 마련이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서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열거하고 있다.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주간(오전 7시-해지기 전)에는 65dB이하, 야간(해진 후-자정 12시)에는 60dB이하이며 그 밖의 지역은 주간(오전 7시-해지기 전)에는 75dB이하, 야간(해진 후-자정 12시)에는 65dB이하로 규정돼 있다.

이 소음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집회·시위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4호에 규정돼 있다.

준법정신이 입각한 평화적 집회·시위를 한다면 집회·시위권을 보장받으며 그 혜택은 집회·시위를 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준법정신'은 평화적 집회시위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과 국민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이기 때문이다. <이주호·정충영철서경비안보과>

아침물어는 詩 새로사온귀



점점 말이 없어진 우리 할머니
엄마가 병원에 모셔 갔다
"할머니 귀 사 드려야겠어요."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
특별 진단 결과
할머니 귀속에 새로 사온 귀 끼워 드렸다
귀속 집 찾지 못하던 소리를
생생 팔딱 의기양양 돌아왔다.
(동시집 '우리 곁에 병원이 있어', 좋은꿈, 2022)

[시의 눈]
이웃과 소통은 커녕 이리저리 흉을 일삼는 동네도 있습니다. 듣는 게 병이 될 때가 있지요. 듣지 않으면 편했을 말, 비싼 밥 먹고 뒤통수 때려서도 할까요. 난 할머니 치마폭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지요. 옥수수 찌뽕이 소고 내 호기심을 거만거만 북돋우곤 했답니다. 그 재미에 빠져들다 어느 날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던 할머니를 안다시게만 쳐다보곤 했지요. 그 무렵 할머니가 갑자기 주눅이 버렸어요. 보충기가 한 번 더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나 중학교 때 할머니는 먼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몇 해 전 장모님께서 '귀'를 끼워드리길 원했습니다. 마침 할머니가 시어 '생생 팔딱'하시던 게... 한데 보청기 낀 귀가 잘 들리지 않아요. 자식 자랑을 한단 걸 늦게야 알았습니다. 그리마시라 해도, 도무지 '의기양양' 해만 하셨습니다. 해마다 어린이날이면 그 이야기 주머니가 새삼 그립습니다. 사실 난 할머니의 그 자선으로 문학을 했다고 봐요. 이전 까미득넷 스토리텔링도 이미 비극을 썼기 때문이요. 정혜진 시인은 고흥에서 나 1977년 '아동문예' 동시 전문, 1991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동화로 등단했습니다. 동시집 '바람과 나무와 아이들'(1979) 등 7권이 있고, '봄비', '내 가슴엔', '단풍이 행진'이 교과서에 수록되었습니다. 그는 화순에서 등산과 같은 지순의 삶에 파묻힌 모종을 옮기듯 파란 글씨를 쓰는 작가입니다. <노창수 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8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기사실정규칙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